동두천시, 전국 대표 축제도시로 도약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축제'를 도시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축제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생활인구 확장,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루에 수만 명이 모이는 현장', 'SNS에서 수십만 회 공유되는 콘텐츠', '지역 상권에 실질적 매출을 안겨주는 기회'. 이제 축제는 단지 즐기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축제의 경쟁력도 중요해졌다.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 지역 특성과 맞지 않는 기획, 소통이 부족한 축제는 철저한 외면을 불러온다. 이 때문에 축제가 '얼마나 화려하냐'보다 '얼마나 독창적이냐', '얼마나 지속가능하냐'가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2024 청소년 별자리 과학 축제 모습. (사진=동두천시)

지역축제, 단순 문화행사 넘어 도시정책 핵심 전략화
지역경제 회복·도시 이미지 제고 플랫폼으로 재조명

동두천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적 유산과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 락 음악의 발상지라는 문화자산을 활용한 '동두천 락 페스티벌', 주한미군과의 오랜 공존을 상징하는 '한미 우호의 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별자리 과학문화예술축제' 등은 동두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자 경쟁력이다"라며 "특히 우리시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도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콘텐츠로 풍성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 동두천은 다시 한번 축제의 계절을 맞는다. 도시의 개성과 매력을 한껏 드러낼 대표 축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주목된다.

제25회 동두천 락 페스티벌, 9월 개최

락의 도시 동두천이 올가을 다시 한번 열정의 심장을 울린다.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동두천 신천교 하부 특설무대에서 '제25회 동두천 락 페스티벌(2025 ROCK in DDC)'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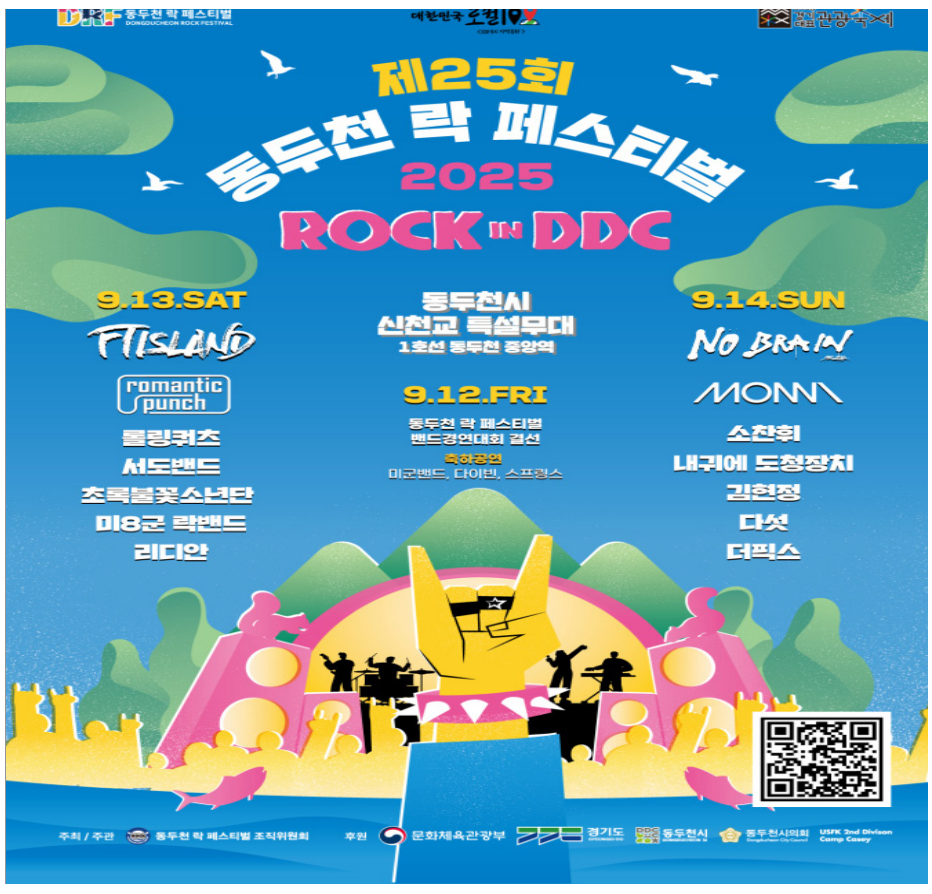
1999년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동두천 락 페스티벌은 국내 최장수 락 음악 축제로서 동두천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락 음악의 살아 있는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 문화 행사다.

올해 페스티벌은 프로그램과 장소 모두에서 새로움을 시도한다. 먼저, 8월 30일과 31일 동두천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예선전이 열릴 예정이며 전국에서 모인 120여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이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30여 팀은 9월 12일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루며 축제의 막을 올린다. 같은 날 결선과 함께 미군 밴드, 다이빈, 스프링스 등이 축하 공연을 펼쳐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어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는 '크레이지 데이' 본공연에는 국내외 최정상급 밴드들이 총출동한다. 13일에는 FTISLAND, 로맨틱펀치, 롤링쿼츠, 서도밴드, 초록불꽃소년단, 미8군 락밴드, 리디안이 무대에 오르며 14일에는 노브레인, 몽니, 소찬휘, 내귀에 도청장치, 김현정, 다섯, 더픽스가 관객과 호흡한다.

전설적인 뮤지션부터 신선한 신예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라인업이 준비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세대 간 음악적 교차와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 락 페스티벌 포스터. (사진=동두천시)

제18회 한미우호의날 축제 9월 진행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 소요산 특설무대에서 신천교 하부 둔치로 장소를 옮겼다. 신전을 배경으로 도시 중심과 원도심을 잇는 이번 변화는 단순한 무대 이동을 넘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속 공연이라는 접근성의 장점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문화 축제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유소 장군 승전 치하 상황극. (사진=동두천시)

오는 9월 27일 토요일,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야외무대에서 '제18회 한미 우호의 날 축제'가 개최된다. ↗